

주의 세례 축일

제 1독서 : 이사 42, 1-4. 6-7

제 2독서 : 사도 10, 34-38

복 음 : 마태 3, 13-17

순정이

“그는 내가 믿어주는 자,
마음에 들어 뽑아 세운
나의 종이다”

(이사 42, 1).

강론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은?”

김순태 신부/효자우전 천주교회

오랜 기다림의 침묵을 깨고, 새시대를 예고하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마태3,3)은 마치 어둠의 한줄기 빛처럼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였다. 그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설움의 눈물을 삼켜왔던가?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떼처럼 요르단강으로 몰려왔고, 많은 이들이 그의 제자로 입문하게 된 것은 당시 그의 인기로 보아 하나도 이상할게 없다. 당시 백성들은 세례자 요한을 그들의 영도자로 생각했고, 그는 그 모든 인기를 등에 업고,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채 새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소개한다. 이 지도자는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위를 한몸에 지니고 등단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분은 일찍이 여자의 품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인물(마태11,11)로 인정받았던 세례자 요한조차도 그분의 신발마저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분이 죄많은 군중들 무리에 섞여 요르단강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한낱 죄인들이나 필요로 했던 세례를 주저함없이 자처하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였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은 참으로 가혹하리만큼 매섭고 무정하다. 온갖 죄인 잡배들의 무리 속에 섞여 요르단강에서 머리를 숙인 것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지도자는 앞으로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될 것이고, 또한 최후의 처절한 죽음의 절규마저도 하느님은 외면하실 것이다. 이래야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얼마나 이러한 하느님의 뜻이 왜곡되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되어져 왔던가?

이 땅엔 아직도 정치가는 많지만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지도자는 드물다. 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70%를 넘는다는데 사회악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평등성은 가르치면서도 교계의 벽은 여전히 두텁게 느껴진다. 이웃 사랑에 대한 소리는 높는데 소외된 사람들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소리

“다시 태어나게 해야”

“언론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또 기자는 왜 있어야 하는가.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의 새해 기자회견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당선자뿐 아니라 언론인에게 이러한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문자답 형식의 보도자료 외에는 보도진에 의한 일체의 질문이 봉쇄됐으며...당선자의 언론관과 굴절된 한국 언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위의 내용은 ‘김 당선자의 ‘대담한’ 회견 방식’이라는 제목의 기사 (한겨레 신문 12.29 자)를 발췌한 것이다. 이는 다음에 소개하는 작은 제목들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대통령 선거 공정보도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대선과정을 전후해 나타난 우리 언론의 현주소를 정리한 기사(언론노보 12.26자)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우울하게 한다.

신문보도 총평의 제목들-‘공정한 보도’ 일각의 노력이 돋보였을 뿐, 외피만의 공정 막판엔 폐기/‘유용한 정보 제공’ 공약별 차이 부각 안돼 유감, 후보 자질 조명엔 직무유기/‘선거부정 감시’ 의지는 없고 변죽만 울렸다, 관련 개입 때로는 두둔까지. 방송보도의 제목들-시중 YS 손 올려주기 한몫/허울 좋은 중립 의지 상치뿐인 공정방송, 간부들과 기자들 서로 상반된 노력 참담.

부산지역 기관장 모임에서 나온 “젊은 기자 다스리는 비법 망언”이 문득 뇌리를 스친다. 그렇다. 언론이 제구실을 다해야만 새한국이 건설된다. 이제 권력에 의해 길들여진 언론은 영도다리에 밀어 넣어 철저히 빠져 죽게 하고, 이 사회에 필요한 목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甲]

순정이 산책



환영합니다.

성서교실 19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창세기 12장)

선사시대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조들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성조들이란 이스라엘 민족의 창조상들을 말한다. 성조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그리고 가끔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야곱의 12 아들들을 기리킨다.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조시대는 기원 전 2,200년에서 1,200년 사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성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 시기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는 없다. 성서에 나오는 성조들의 이름들이 고고학적인 문헌으로 확인되긴 하지만 성서에서 보듯이 일목요연하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식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는 각 부족의 족장들 이름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성조 이야기들은 민족의 기원과 경신례 장소, 풍습을 밝히기 위한 신학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아브라함에게 두고 그의 삶을 매우 상세하게 그린다. 아브라함은 기원 전 2,000년-1,800년 사이에 활동하던 유목민으로 보인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시 상업도시였던 하란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다. 이에 아브라함은 선뜻 응답했고,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한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이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신다. 이는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근본이 되어 그의 이름이 남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그에게 축복을 내리는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질 것이며, 마침내 그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이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심으로써 길 떠나는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정해 주신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방황하는 유목민이 아니라 목적지를 알고 떠나는 순례자가 된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이 족장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아내와 조카, 하란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떠났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모습

평생 족장으로서 어느 곳에 정착하여 도시를 세우거나 땅을 쌓지 않고 살아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여 어느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네겔에 정착한다.

네겔에 정착하여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은 에집트로 이주한다. 당시 팔레스티나 주민들은 흉년이 들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에집트로 넘어가곤 했다. 아브라함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한데 아브라함은 에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 사래에게 자신을 오라버니로 부르라고 명한다. 왜냐하면 미모에 반한 에집트인들이 자기를 죽일까 염려해서이다. 살아가기 위한 호구지책치고는 부도덕하고 비겁하다.

여기서 저자는 주님께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곤경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하느님은 당신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인간의 잘못에서도 긍정적인 가치를 끌어낸다.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를 저지르지만 땅과 후손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순례를 계속한다.

하느님은 믿음을 가지고 미지의 땅으로, 신비의 세계로 미련없이 떠나는 사람들과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자는 가르친다.

활 티 생 수

전화번호 변경되었습니다.

김 일 수(요 셉)
소 화 숙(수산나)

전주영업소 (0652)86-0419

MC² 엠 · 씨 스퀘어

액정비전 · OHP · 스크린
어학학습기(닥터위콤) · 휴대폰

김 인 수(요셉)

한진고속 옆 기린상가 내
☎ 251-1873~4

군산 안과의원

부설 : 엑시머레이저, 인공수정체
클리닉, 서울 콘택트렌즈

원장 이 선 구(투가)
차 금 옥(아네스)

군산시청 사거리
☎ (0654) 42-2171

노 령 기 획

신용조합 행사용품, 각종 단체 행사 기념품, 각종 개입 답례품 및 판촉물 김 배 군(스테파노)

월드컵 사거리 ↔ 다가동 파출소
☎ (0652)82-6224
FAX(0652)85-6224

돌아오시던 날



겁습니다. 앞으로 명령 따르며 내 힘 닿는 대로 전교하겠습니다.”라는 필담을 주셨다. 당신 몸은 생각도 않고 ‘내 힘 닿는 대로 전교하겠다.’는 신부님의 글을 뺨히 바라보며 온통 상처받은 신부님의 손을 쥐어보는 순간 나는 솟구치는 눈물을 참느라고 애를 먹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신부님은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다행히도 알아들을 수는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그동안 한국천주교회의 발전과 우리 교구의 상황을 열심히 설명해드렸더니 감회에 젖은듯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다. 그리고 서울에 차가 많음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63빌딩을 지날 때는 감탄하셨다.

12월 29일 밤11시30분경 신부님의 건강 진단을 위해 이리 성모병원에 모셨었지만 신부전증과 천식이 심하여 31일 오전 전북대학병원으로 다시 모시게 되었다.

'93년 1월 2일 오전 10시30분 교구 내 모든 신부님들과 수녀님 그리고 2,500여명의 교우들이 신부님을 환영하는 미사와 환영식이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시는 신부님을 좀더 가까이서 보고,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신자들의 모습을 보며 신부님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을까?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부님은 줄곧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주교님의 강론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그리고 우리 모두 훌륭하신 두 분(임복만 신부, 문규현 신부) 신부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었다.

미사가 끝난 후 2,500여명의 교우들은 신부님을 뜨겁게 환영했고 신부님께서서는 필담으로 “저는 50년 전에 감목대리 김양홍 신부의 주선으로 중국에 갔습니다. 지금 매우 기쁩니다. 나중에 병 나오면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답사를 마치자 박수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미사 후 어떤 수녀님은 임 신부님을 보고 “그분의 현존이 저의 수도생활에 많은 자극을 주었어요. 수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새기는 계기가 되었어요.”라고 했고, 어떤 신부님은 “눈물이 나와서 혼났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며 말을 잊지 못했고, 어떤 신자는 “신부님의 거룩한 삶 앞에 그저 고개 숙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교님 말씀처럼 신부님의 삶은 햇불처럼 빛나 저에게 큰 용기를 주거든요.”라며 숙연해 했다.

살아 있는 순교자 임복만(바오로) 신부님! 신부님께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신부님의 현신적인 삶이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오직 주님과 교회를 위해, 양떼를 위해 죽음과 같은 형극의 길을 무사히 마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 곁에 살아 돌아오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신부님은 바오로 사도의 말대로 달릴 길을 다 달렸고, 우리 안에 햇불처럼 우뚝 섰다.

우리 모두 신부님을 본받고, 신부님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껏 모시자.

임복만 신부와 문규현 신부 환영미사

93년 1월 2일 중앙 성당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중국 선교 50년 만에 살아서 돌아오신 임복만 신부님, 그리고 민족 분단의 비극적 현실 때문에 3년 반 동안 감옥생활을 하셨던 문규현 신부님. 이 두 분 신부님으로 하여 우리 교구는 1993년 새해를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신부님께서 그동안 겪으신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두 되새길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 하느님과 두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신부님들을 위한 환영미사를 봉헌하면서 마음속에 묘한 감회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방금 경과 보고를 통해서 두 분 신부님을 모시고 이렇게 환영미사를 봉헌할 수 있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경사가 겹친 것까지는 기쁜 일이지만, 깊이 새기자면 각자 대변하시는 역사적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두 분을 한자리에서 축하해 드리게 된 점에 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문규현 신부님께서도 임바오로 신부님의 귀국 소식을 들으시고 곧 있게 될 환영식은 대선배 신부님을 위주로 하여 꾸며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세례자 요한의 인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대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인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요한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문규현 신부님께서도 이런 정신을 엿볼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임복만 바오로 신부님의 면모를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도 1942년 4월에 만주국 신경, 지금의 길림성 장춘 성당에 도착하여 4-5개월간 중국말을 배우시고 첫부임지인 해복의 선목촌 성당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교우가 많아서 우리 동포 즉 조선족 신자만 해도 천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초에는 당시 만주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지자 요시찰 인물인 신부님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불란서 신부님 두 분과 임 신부님을 일본 경찰이 체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예상보다 빨리 패망함에 따라 신부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패망과 함께 무정부 상태가 한동안 계속되는 틈을 타서 강도와 도둑떼들이 들끓었고 신부님의 본당



관내에도 그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여러 명씩 잡아 죽이고 큰 상처를 입히는 등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자 조선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소련 군대의 도움을 얻어 열차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임 신부님께서도 귀국하실 뜻을 가지고 장춘에 계신 주교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고 주교님과 임바오로 신부님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고 주교: “남아 있는 양들이 얼마나 됩니까?”

임 신부: “많습니다.”

고 주교: “그렇다면 목자가 자기 양들을 버리고 갈 때, 그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임 신부님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슬회하고 계십니다. “주교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나는 머리를 숙이고 내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한 후, 다시 발길을 돌려 해복을 찾아갔다.”

그렇게 해서 이후 45년 동안 계속된 모진 박해와 혹심한 고통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946년부터 공산당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이듬해부터 토지개혁이 단행되어 해복에서 조선인들이 신부님을 잡아다가 때리고 다달하였습니다. 그래도 신부님은 중국인 교우들의 거센 항변으로 몸에 심한 상처가 날 정도로 맞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뒤로도 당국은 걸핏하면 신부님을 감옥에 가두고 갖은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1951년에는 종교혁신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를 거절하자 동료 조선족 사제였던 김신영 신부님은 1951년에 체포되어 1970년에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임 신부님은 숨어서 활동하시다가 1954년에 체포되어 '반혁명분자'라는 글씨가 박힌 모자를 씌워 5년 징역형을 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형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관청에서는 로마와의 관계를 끊고 국가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고, 신부님께서 이를 거부하시자 다시 3년이 더 가산되어 1962년 9월까지 만 8년을 감옥에서 사셨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당시의 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간은 육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주 윤택하고 성스럽게 지냈다."

당시 중국에서는 옥살이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이 맞아줄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럴만한 가족이 없으면 다시 강제노동에 불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 신부님께서서는 8년간의 감옥생활에서 풀려났을 때에도 반겨줄 가족이 없어서 집단농장에 끌려가 1년을 더 일하신 다음 1963년에 그 농장으로부터 도피하여 한 교우 집에 은신하셨습니다.

1968년에는 중국 사람으로부터는 한 점지기를 맡아 열심히 일하셔서 버가 한참 자랄 무렵인 6월 8일에 또다시 체포되어 시내를 끌려다니며 매를 맞고 머리를 쥐어뜯기며 수명이 뽑히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 길로 다시 투옥되어 1년 1개월을 감옥에서 사신 후 석방되어 노동자로 일하셨습니다.

1980년 등소평의 등장과 함께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유독 천주교만은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 때문에 예외가 되어 자유가 많이 제한되고 박해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투옥되고 강제노동에 동원되시는 등 이른바 지하교회에 속한 사제로서의 고통을 계속 겪으셨습니다. 감옥 밖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사제로서의 활동은 숨어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다른 곳을 향해 떠나실 때에는 교우들조차 신부님의 행선지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부님께서서는 4복음서를 여러 권 손으로 베껴 써서 신자들에게 나누어주셨습니다.

1986년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김시몬, 김수산나 부부께서 온갖 위험과 각종 부담을 무릅쓰고 신부님을 집에 모셔주셨기 때문에 비교적 평온하게 지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중에서도 처음 3년 동안은 이웃집 사람들도 모를 정도로 집안에 철저히 숨겨서 신부님을 모셔야 할 만큼 분위기는 삼엄하였습니다.

저는 임 신부님께서 이렇게 돌아오신 일과 관련하여 신부님께서 1985년 5월에 교구로 보내신 편지 한토막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경하을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이 소인에게 강복 하소서.

저는 제 조카 임상순을 통해서 주교님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주교님께서 저의 귀국문

제에 대하여 많이 관심하신다 하오니 경건한 마음으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저는 귀국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주교님 저 역시 한 작은 목동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넓은 천지에 많은 양들이 목자 없이 사면팔방에 흩어져 굶주리며 목자를 찾는 애원의 소리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착한 목자라면 어찌 이 불쌍한 양들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안녕을 찾겠습니까? 저는 이 양들을 찾고 또 찾아 매를 따라 먹이고 매를 따라 마시우고 매를 따라 한우리 안에 평안히 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즉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내 양떼들과 더불어 생사를 같이하고 고락을 같이하려 합니다. 오직 주교님께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은 주교님의 열렬한 기도뿐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60년 가까이 사제생활을 해오신 임 신부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오신 것은 신부님의 건강상태로 해서 이제 더 이상 매를 따라 양떼들을 먹이고 마시우는 일을 하실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 형편으로 볼 때, 여기서는 임 신부님께서 아직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태여 말씀을 하시거나 어디를 찾아가실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만으로도 임 신부님께서서는 후배들에게 사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제들뿐 아니라 모든 봉헌된 삶을 살아가시는 수도자들과 세상의 삶에 따르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제1독서에서 들은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임 신부님의 모습은 햇빛처럼 남아 우리를 밝혀줄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만큼 인류 역사에 큰 변화를 몰고 온 때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몰아닥친 역사적 변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를 사시면서도 '처음부터 들어온 신앙' 즉 정통신앙을 지켜오시고 신자들을 그렇게 인도해오신 임 신부님은 착한 목자의 모범으로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길이 남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부님께서서는 자신을 늘 부당한 종으로 부르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견지해오셨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이런 태도를 통해서도 세례자 요한처럼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임복만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신부님의 삶과 정신을 더 깊이 배움으로써 착한 목자상을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뚜렷이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랜 동안의 시련 속에서도 두 신부님들을 지켜주심으로써, 당신 스스로 체험하신 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임복만(바오로) 신부

12월 29일 오전 11시, 임 신부님께서 오후 5시 30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 주교님을 비롯 신부님, 수녀님, 가족들 그리고 신자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신부님께서 무사히 귀국하시기를 기원하며 '주모경'을 바쳤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뵙고 싶은 신부님. 이제 우리 곁에 오신다는 설레임 때문에 평소에 지루하게 느껴졌던 서울길도 그리 멀지 않게 느껴졌고, 가는 도중 간간히 가족들을 통하여 임 신부님에 대해 얘기를 듣고 답소를 나누며 예정보다 빨리(오후 4시 30분경)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하니 서울에 사는 임 신부님의 몇몇 가족들은 미리 도착해 있었고 임 신부님의 친누이동생 임순이(세군다·74세) 할머니는 '11살 때 헤어져 신부님은 저를 알아볼 수 없을거예요. 정말 꿈만 같아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고 말을 잇지 못했다.

비행기는 예상보다 빨리 도착(오후 5시 10분경)했고, 우리는 초조함과 설레임으로 '☉ 임복만 신부 중국 선교 50년 만에 귀국 ☉'이라는 피켓을 들고 신부님이 나오시기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5시 50분경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임 신부님을 모시고 나오는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은 흥분해 있었고 주교님을 비롯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임 신부님께 달려갔다. 주교님은 상기된 표정으로 임 신부님을 뜨겁게 맞이했고 우리 모두는 보도진들과 함께 귀빈실로 달려갔다. 임 신부님으로서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말씀은 못하시지만 시종일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안으로 안으로 눈물을 삭여야 했다. 얼마나 오고 싶었던 고향이었을까? 얼마나 보고 싶은 형제들이었을까? 그러나 신부님은 모든 걸 눈물로 답하시는 것 같았다. 여러 번 귀국할 기회가 있었으나 목자 없는 양떼를 포기할 수 없었던 신부님! 그러던 신부님이 중풍과 노환으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그곳 신자들에게 짐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돌아온 것이다. 신부님은 비록 말씀은 못하시지만 '착한 목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참된 사제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세상 그 어떠한 웅변보다 더 큰 설득력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선 것이다. 이 얼마나 우리 한국천주교회, 우리 교구의 자랑스러운 일이나!

귀빈실에서 추기경님과 주교님, 가족들,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교우들이 차례로 신부님께 인사드리는 동안 신부님을 7년 동안이나 모셨던 김시몬, 김수산나 부부와 신부님께서 귀국하시는데 도움을 준 노광덕(바오로) 형제가 들어오자 또 한번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고 귀빈실은 온통 흥분과 기쁨의 도가니였다.

한 취재기자의 질문에 신부님은 "한국에 와 추기경님과 주교님 및 교우들을 만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편에 올 때 그곳에 있는 교우들을 떠나오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라고 필담을 해주시기도 했다.

우리 일행은 귀빈실에서 영접을 마치고 오후 6시 20분경 임 신부님과 함께 버스를 탔다. 신부님께서 얼마나 감회가 깊으셨을까? 환하시면서도 상기된 거룩한 신부님의 모습을 난 잊지 못할 것이다. 웬지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나는 신부님과 함께 자리했다. 그리고 귀국하신 소감이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한국에 오게 되어 마음이 기쁜 중, 우리 서울 추기경님과 우리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님이 교우들과 같이 환영을 하니 대단히 즐



신부님을 모셨던 중국교포 신자

잡간

재유립 교구 신부, 신학생 모임을 마쳐

멀리 고국에 계시는 — “교구 내 선배 신부님들과 교형 자매님들께”

저희들은 유럽에 나와 있는 교구 신부, 신학생들입니다. 지난 91년 성탄절에 시작된 재유립 교구 신부, 신학생 모임이 두번째가 된 올해, 함께 지내면서 나눴던 형제애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인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고국에서 말없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스위스, 로마, 오스트리아, 독일 등지에서 흩어져 살아왔던 저희들 각자의 생활을 돌아켜보고, 서로 위로하며 지냈던 며칠간의 (12월 26일-30일) 시간을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또는 사목에 전념하느라 긴장되었던 저희들의 마음에 커다란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주교님의 사목교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저희들의 모임은 교구 내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의 실천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과의 일치를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한해 또다시 저희들의 각자의 임무에 충실히 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기도에 감사드리며 다시 뵙게 되는 날까지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독일 Mainz에서 재유립 전주교구 신부, 신학생 올림

교구 소식

※ 부제·사제품 대상자 이나시오 피정 : 1월10일-31일 예수고난회 피정의 집, 기도 부탁합니다. 부제-이득재(진안), 사제-송영진(평화) 권완성(조촌) 김광태(팔마) 고봉호(수류) 장상원(고산) 김봉술(상판).

1. 김영일 신부님 위독 : 은퇴중에 계신 신부님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기도해주시시오.
 2. 교구 성서 경시대회 시상식 : 92년12월27일 전동 성당에서 실시되었던 성서 경시대회의 시상식이 1월2일 중앙 성당에서 있었다. **명단**단체상-최우수: 인후동 성당, 우수: 노송·요촌·호성동·진안·송학동·신동 성당. 개인상-최우수: (요촌)김은정, 우수: (인후동)최옥련 (요촌)소정순 (노송동)최영숙 (금암)최우남 (인후동)김영호·양순자·김도성 (월명동)김연 (신동)김순례 (용머리)송요섭 (신평)한애근 (노송)박혜경 (월명동)이순례 (송학동)윤만수 (서신동)신덕순.
 3. 사목교서 연수 : 1월17일 오전10시 전동 성당, 대상-남전주 김·정·고·부 지구.
 4. 중·고 전례부 연수 : 1월16일-17일 나바위 대건교육관.
 5.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 1월11일(월) 오후7시 흥보국.
 6.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1월17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7. '사랑의 다리'월레미사 : 1월11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미사-이병호 주교.
 8. 전주교구 제모임 : 1월16일 오후2시30분-5시 개성간호대학, 대상-일반인, 17일 오후2시-5시 가톨릭센터 3층, 대상-국교생부터 일반인.
 9. M.E. 주말 : 1월15일-17일 천호 피정의 집.
- ※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상영 : 1월18일(월) 오후2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천사들의 합창.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압력술을 사용합시다

밥을 할 때는 일반 냄비나 솥보다는 조리시간도 절약하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밥맛도 좋은 압력술을 사용합시다. 작은 실천이 모아지면 큰 절약이 됩니다.

요심이 (1014) 김병오



여사무원 모집

- 자격 : 고졸 이상, 영세3년 이상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1통
본당신부님 추천서 1통
영세증명서 1통
- 제출마감 : 1월 20일까지
- 면접일자 : 1월 24일
- 연 락 처 : 221-3711 우전성당

시청각 통신성서교육부 신입생 모집

- 신규약성서 입문과정
- 내용 : 신규약성서 2년
- 구비서류 : 입학원서, 증명사진2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원서접수 : 93년 1월 말까지
- 문의 : 252-3398 성바오로서원

노들담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 매월 셋째 주일
오후2시-5시
- 곳 : 인천 본원
- 문의 : 서울(02)763-2274
인천(032)542-6318
대전(042)625-2647

백합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연주복 맞춤·대여
* 신자분 환영합니다.
김 명 옥(올리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17-3
☎ (0652)84-4662

결혼·약혼·파티복·남복 고려주단 한복싸롱

전 광 원(마르코)
김 소피아
전주시 완산구 고시동 1가 120-1
(신평 예식장 골목)
☎ 88-1902

성공적인 삶의 비결

- 1월10일(일) 오후2시와 7시(2회)
- 전주 가톨릭센터 대강당
- 주최 : 한국정신과학연구원
- 연사 : 김중배(말시아노) 박사
- *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바람.

송학동 성당기(도안) 공모

- 접수 마감일 : 1993년 3월 31일
- 시상 내용
대상1명 : 상패 및 부상(50만원)
입선작2명 : 상패 및 부상(각10만원)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 접수 및 문의처 :
송학동 성당 (0653)841-9713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1. 설날합동 위령미사 예물집수 : 22일까지, 사무실(조상님들을 위해 정성어린 봉헌바랍니다)
 2. 93년도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회 : 17일 전동성당(사목회장단, 각분과부장단은 참석바랍니다)
 3. 예비자교리 : 17일부터, 수요일-저녁미사 후, 일요일-장엄미사 후.
 4. 모임 : ①꾸리아(오늘 천사의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2시, ②장우희(오늘 장엄미사 후) ③부녀회-12일 어머니미사 후 ④대건회(17일 장엄미사 후)
 5. 금주침소 : 동진2반, 남노1반, 차주침소 : 남노2, 3반.
- ☐ 지난주 봉헌금 : 857,780원 ☐ 교무금 : 1,229,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구정 합동 위령미사 :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2. 회합 : ①요셉회-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후2시 ③청년회-저녁미사 후 ④안나회-14일 오전10시 ⑤성우희-17일 공식미사 후.
 3. '93년도 교무금 신입바랍니다.
금주전례 : 오교성, 독서-박상기씨 부부, 봉헌-정동민씨 가족, 차주전례 : 유두석, 독서-정동민씨 부부, 봉헌-라경설씨 가족.
- ☐ 지난주 교무금 : 609,200원 ☐ 교무금 : 860,2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한 동 옥
지표-전교의 해

- * 오늘은 주의 세례 축일입니다.** '93년당 사목 지표-전교의 해
1. 부제님 피정 : 31일까지 많은 기도바랍니다.
 2. 성가대 정기총회 : 13일(수) 저녁미사 후.
 3. 청년회, 성가대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장년회 : 16일(토) 저녁미사 후.
 5. 울뜨레아 임원개편 : 간사-이옥동(가브리엘) 부간사-박귀철(바오로) 이순자(마리아) 총무-전선자(글라라) 수고하시겠습니까. 6. 구정합동미사 예물집수 : 사무실에 하세요.
 7. 성서읽기 : 시편71편-80편. 8. 금주침소 : 모든성인의 모후Pr.
 9. 금주전례 : 해설-최원규, 독서-김봉길 ②주영래 봉헌-김병영, 김단오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이미숙, 독서-남현준 ②김미남 봉헌-최경림, 김대권씨 부부 ☐ 미수금 : 108,000원
- ☐ 지난주 봉헌금 : 339,660원 ☐ 교무금 : 145,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동

- * 주의 세례 축일!**
1. 회의 : ①프란치스코3회-1월10일(오늘)오후2시 ②성모회-1월17일(다음주일)공식미사 후 ③성심회-1월13일(수)오후2시.
 2. 모임 : ①울뜨레아-1월13일(수) 오후8시
 3. 알림 : ①설날(구정)합동 위령미사 예물-사무실에 접수바람 (선영을 위한 정성어린 봉헌바람) ②설날(구정)대축일미사-1월23일(토)오전10시30분, 오후4시-어린미사, 오후7시-종교생미사, ③종교전래부연수-1월16일(토)~1월17일(일)나바위(16일 오후1시30분까지 가톨릭센터에 도착해야함) ④92년도 교부금 미수자 완납바라며 93년도분 신입바람.
- ☐ 지난주 봉헌금 : 674,850원 신정현금 : 364,950원
☐ 교무금 : 485,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주의 세례 축일**
1. 오늘 공식미사 후 : 울뜨레아.
 2. 예비자 모집에 적극 협조합니다(금요반, 일요반)
 3. 고흥-유자차 도통동-꿈, 교양상, 찻상 : 어려운 본당을 도웁시다.
 4. 침소 봉사 : 5구역 1반, 2반.
- ☐ 지난주 봉헌금 : 758,2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불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오늘은 주의 세례 축일입니다.**

1. 금주 : ①자모회(전10시) ②일치의 모후Cu(후2시) ③사목회(후8시)
2. 축! 43차 남성 푸르실로 감승수로 : 윤홍수(프란치스코) 김영배(베드로) 3. 돈·보스코회 : 13일(후7시30분)
4. 구역반장회의 : 14일(전11시) 5. 빼애포회 : 16일(전10시)
6. 중·고 전래부 연수회 : 16일~17일 나바위 교육관.
7. 차주 : ①바비의 성모Cu(후2시)
8. 사리회 발족 : 회장-김인준(첼마) 부회장-노영자(바실라) 총무-안숙자(글라라)
9. 글로리아 성가대 임원개편 : 단장-이병주(대건안드레아) 부단장-백순주(유스티나) 총무-조현숙(베투베투아)-성가에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 지난주 봉헌금 : 1,949,01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우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장 상 근

- * 설날합동 위령미사 접수 :** 선영을 위하여 정성껏 봉헌합니다.
1. 사목회 상임위원회 : 14일 저녁8시 분승육 광진3동1201호.
 2. 가정방문 일정 : 13구역4반(거산) - 13일 후2시30분.
 3. 구역미사 일정 : 13일-14구역4반 저녁8시30분, 14일-14구역1반 전9시, 14구역2반 후3시, 15일-14구역5반 전10시, 14구역7반-후3시. 반회장님은 미사장소를 알려주십시오.
 4. M.E 43차 : 송호철, 최순이 부부, 이완남, 정영희부부-15일.
 5. 중·고 전래연수 : 16일~17일, 장소-나바위 대건교육관.
 6. 사목교서 연수 : 17일 전9시, 전동 사목회임원 및 단회장.
 7. 본당 성서경시대회 입상자 : 최우수-최성남, 우수-송옥자, 정송자, 최경자, 노력상-강상근, 이미숙, 조보영, 안인순.
 8. 장요셉수녀님 연중피정 : 12일~25일 기도바랍니다.
- ☐ 지난주 봉헌금 : 1,117,730원 ☐ 교무금 : 1,646,5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성모회 : 오늘 미사 후.
* 꾸리실로수료자 탄생 : 송승열(바오로)
2. 반모임 : 12일(화)오전-화산2(B)오후-평화, 저녁-동남삼정 2.
13일(수)오전-금하, 오후-화산2(A), 비사빌, 14일(목)오전-오성온하1, 오후-오성온하2.
3. 대건회 : 14일 오후7시.
4. 교사임시총회 : 15일 오후2시.
5. 자모회 : 다음주일 미사 후.
6. 설날 합동미사예물을 사무실에 접수하십시오.
7. 교부금 신입과 교적을 정리해주시시오.
금주전례 : 이완자, 독서-봉헌-김 강, 정 걸, 차주전례 : 한병갑, 독서-봉헌-김정애, 박태수.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 * 오늘은 주의 세례 축일** 사목회장이 동 설
-모임안내-
1. 울뜨레아 :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모회 : 13일(수) 오전11시.
 3. 자모회 : 다음주 20일(수) 10시30분, -알림-
 4. 판공성사 못보신분 매미사 전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5. 93년도 교부금 신입세대 372세대 77,560,000원입니다. 모든세대가 조금씩이라도 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6. 92년도 미납하신분도 완납바랍니다.
미사안내 : 금주-자비의모후, 순명의모후, 차주-하늘의문, 사랑하옵모후.
- ☐ 지난주 봉헌금 : 1,131,940원 ☐ 교무금 : 1,313,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모임안내 : ①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②빈첸시오회-11(월) 오전10시 ③자모, 성모, 성심회-15(금) 10시미사 후.
 2. 금년도 교부금은 자진하여 신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우회합림 : 회장-임해두(프란치스코) 총무-강인성(파비아노) * 매월 2째주 바둑모임-사랑방
 4. 구정 합동미사예물 접수바랍니다. 5. 여사무원 모집합니다.
차주모임-성전신축성임위원회, 신축현금봉헌액-12,680,000원
금주전례 : 해설-김낙완, 독서-①김용신 ②정영호 봉헌안내-황인용 부부, 이준영 부부, 차주전례 : 해설-박명래, 독서-①김자옥 ②이병희 봉헌안내-김인곤 부부, 권일만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 1,363,490원 ☐ 교무금 : 3,202,000원